"종말론, 비관적 역사관의 한 담론"

고영섭씨 '세계종말과 새 시대' 학술회의서 주장

◇고영섭

새 천년을 앞두고 기상이변 등 재난에 대한 불안증후군, 환경 오염 및 생태계 교란, Y2K문제, 예측 불가능한 경제상황 등 불길한 징조로 인한 종말인식이 확산된 가운데 불교적 시각에서 종말론과 말법론을 재고한 논문이 발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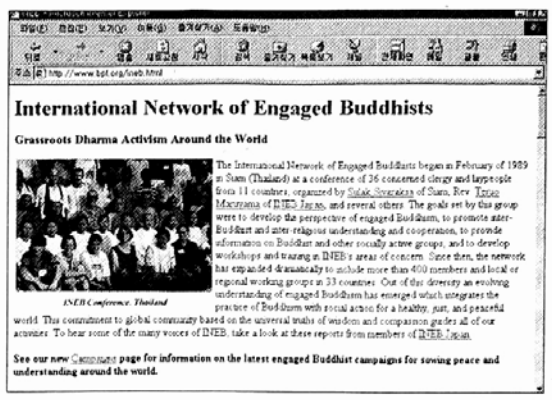
민족학연구소와 한국민족학회 공동주최로 11월19일 한양대에서 '세계 종말과 새 시대'를 주제로 개최된 '99 연례 국제 학술대회에서 고영섭씨(동국대 불교학과 강사)는 불교의 시간관을 통해 '불교의 말법론(末法論)'을 조망했다.

고영섭씨는 '불교의 말법론' 주제발표에서 "종말론은 '시작'과 '끝'을 실체화함으로써 생겨난 병폐다"며 "'제행무상(諸行無常 모든 것은 변화한다)'으로 설명되는 불교의 무상적 시간관에서 볼 때 종말론과 불교의 말법론(末法論)은 지극히 제한적으로 논의된 '비관적 역사관의 한 담론'에 지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간은 존재하는 사물의 변화에 따라 인식되는 것일 뿐 존재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무상적 시간론)라는 것이다.

고영섭씨는 이러한 맥락에서 불교인의 비관적 역사관인 삼시론(三時論)을 설명하고 삼시론이 불교 교단 안팎에서 자행된 폐불과 훼불에 대한 위기감 속에서 형성된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역사관에서 비롯됐다고 정의했다. 삼시론은 ▲정법시 : 불교의 황금시대. 부처님이 열반에 든 뒤에도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에 입각한 수행자와 그 수행을 통한 깨달음이 엄존하던 시기. ▲상법시 :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진실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고 형식적인 겉치레로 바뀌는 시대. 부처님의 가르침과 형식적인 수행만이 남아있던 시기. ▲말법시 : 불법의 멸망시대로 부처님의 가르침만 있을 뿐 수행자와 깨달음이 없는 시대.

이와관련 고영섭씨는 "모든 종교의 타락은 교단 내에서 정한 규율조차 지키지 못하는데서 비롯된다"며 "성직자나 신자를 불문하고 해당 종교가 제시하는 '절제'와 '금욕'적 삶의 방식을 지키지 않고 '무절제'와 '욕구'에 따르는 삶을 살때 그 종교는 사회와 불화하고 국가의 기반은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 참여불교도국제연대회의

불교 사회참여 프로그램 보급등 활동

요즘 방송매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NGO'이다. 비정부기구로 선행을 베푸는 사회조직을 총칭하는 말이기도 하다. 아시아 불교계 가운데 대표적인 NGO를 꼽으라면 단연 '참여불교도국제연대회의(INEB, 이하 '참여회의')이다.

인터넷 검색 사이트 인포식이나 야후를 방문하면 이 단체의 연혁이나 활동 내용, 인물·지도자·교육프로그램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 'INEB'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참여회의'는 1989년 태국 시암에서 11개국 36명의 스님들이 모인 아시아평화회의에서 슈라크 시바라크사(태국·인권운동가)와 테루오 마루야마(일본) 스님에 의하여 조직됐다. 이때 참여회의는 △불교의 사회 참여 △종교 간 이해와 협력 △불교와 진보 사회 단체와의 연대 △불교 사회운동가 훈련 및 워크샵 개최 등과 같은 취지로 설립됐다.

따라서 참여회의의 주요 관심 분야는 교육, 비폭력, 인권, 환경, 여성문제, 개발, 양심 등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관심 분야를 바탕으로 참여회의는 전세계 각국의 불교도와 사회 활동가를 연결하여 우호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창립 9년째인 1997년도 참여회의 총회는 6월 1일부터 7일까지 태국 칸챠나브리시(市) 외곽에 있는 리더쉽훈련센터에서 20개국 1백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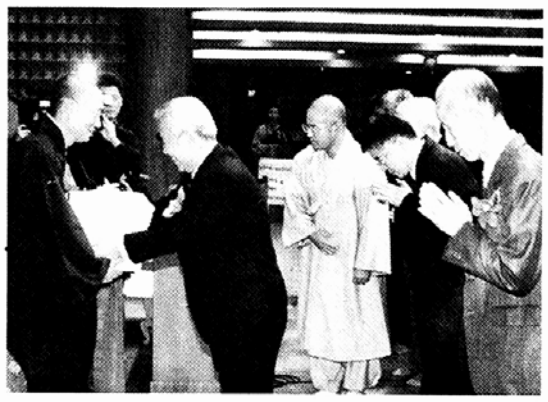
이 자리에서는 독일에 있는 티벳 불자들이 제기한 문제인 관첸라마(6세)의 납치·구금을 즉각 취소하고 석방시킬 것을 중국 정부에 요구함과 동시에 널리 국제 사회에 호소하고, 베트남 정부에 의해 체포·구금되어 있는 '베트남통일불교도회'의 스님들을 위해 국제여론에 호소하는 결의안을 제출, 석방시키기도 했다.

참여회의 슈라크 시바라크사 공동대표는 "불교계 참여운동에 대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라는 보편적인 진리를 실천한다면 서로 다른 의견도 융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http://www.bpf.com/bpf/ineb.html


◇ '불교학 논총'을 헌정받고 있는 운덕 천태종 총무원장(왼쪽).

운덕스님 화갑논총 출간

국내외 논문 55편 수록

천태국제학술회의 열려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11월 23일 서울 관문사에서 제2회 천태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면서 천태종 총무원장 화갑 기념 논총인 〈불교학논총(천태불교문화연구원 刊)〉 헌정식을 봉행했다.

17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논총집은 물리적 부피만큼이나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10편의 해외 논문을 포함한 총 55편의 논문을 4부로 나누어 싣고 있다.

'제1부 천태사상 제2부 한국불교사상과 역사 제3부 불교사상 제4부 불교문화와 예술'로 이루어진 주제 가름에서도 나타나듯이, 이 논총의 1차적 목적은 불교라는 큰 울타리 속에서 천태학을 통한 천태종의 정체성 확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불교학 전분야에 걸친 폭넓은 관심을 보이며 음악이나 미술과 같은 인접 학문과의 연계를 모색하는 등 학문적 편협이라는 위험성으로부터는 멀찍이 물러나 있다.

특히 '불교 합창음악 지도법 연구'(박상진, 동국대 교수)와 같이 현장의 필요에 대응하는 구체적 연구는 불교학의 외연을 넓힌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사례로 보인다.

한편 이날 학술회의에서 동국대 김상현 교수는, 국청사가 낙성되고 의천 스님이 이 절에서 천태교학을 강의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천태종의 개창은 공식화됐다며 천태스님이 천태종을 개창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한 일부의 주장을 비판했다.

중국 산서성 사회과학원 진경부 교수는 의천스님이 교의 입장에서 선을 접수하고 둘을 함께 닦음으로써 종파를 넘어 불교의 통일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경희대 블리디미르 티코노브 교수(vladimir tikhonov)가 '의천의〈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敎藏總錄)〉편찬, 교장(敎藏) 간행의 문화사적 의미', 일본 화원대(花園大) 오키모토 가즈미 가쯔미(沖本克己) 교수가 〈보리달마사행론(菩提達摩四行論)〉에 대하여'란 논문을 각각 발표했다.

도필선 기자

"승가교육 조선중기 교과과정 답습"

'교육개혁 그 멀고도 험한여정' 법인스님 '불교평론'에 기고

부처님의 생애를 가르치지 않고 있다. 조선중기의 교과과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외전과목의 강화가 필요하다….

법인스님(화엄학림 강사)이 최근 〈불교평론〉창간호에 현행 승가대학의 교육 문제점을 지적한 '교육개혁, 그 멀고도 험한 여정'을 실어 주목되고 있다.

스님은 "문명의 전환기에 승가교육이 어떤 행로를 걸어왔는지에 대한 철저한 비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스님이 지적한 승가교육의 문제점은 시대에 뒤떨어진 교과과정이다. 제도의 정비와 체계화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교육내용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스님은 "조선 중기에 이 과정이 확립된 것은 시대 환경에 조응하기 위해서이다. 현 승가대학 교과과정이 정착된 조선시대와 지금은 여건과 환경이 다르다. 아직까지 변화 또는 발전을 모색하지 않는 것은 대단한 무신경이다"고 지적했다. 현재 승가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미·사집·사교·대교과의 교육과정이 350여 년 전 조선중기에 마련된 과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처님의 생애를 가르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스님은 "부처님이 수행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운 일, 전도하면서 겪었던 일, 제자를 가르치면서 겪었던 일 등 율장과 아함부 경전에 담겨져 있는 부처님의 발자취를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며 "승가교육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부처님의 생애다"고 강조했다. 또 "행자교육원의 부처님 생애에 관한 교육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행자교육원에서 사미율의, 초발심자경문, 유교경, 부처님의 생애를 46시간 동안 배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스님은 또 현재의 강원과목은 기본교육이 아니라 특수교육, 산중 은거형 선정주의 교육이라고 잘라 말했다. 현재의 교과과정으로 불교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불교의 기초교의, 특성, 등이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하는데, 가장 원초적인 부처님의 육성이 담긴 〈아함경〉을 교수하고 있는 승가대학은 거의 없다는 것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스님은 "불교가 어떤 종교, 어떤 사상인지도 모르고 스님이 되고, 수행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넌센스다"며 "불교 기초교리, 불교적 가치관, 세계관이 정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곧바로 선으로 직행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체험을 절대화 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불교이해가 아직도 중세에 이루어진 교판(敎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인스님은 컴퓨터를 비롯 영어 일어 등 외전(外典)과목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가운데 비교종교는 다종교사회에서 꼭 가르쳐야할 외전 과목으로 꼽았다. 종교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다른종교의 이해는 절대적이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법인스님은 강주 1명, 강사 2~3명이 전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 인력 절대부족 등 열악한 교육환경, 재교육부재 등을 해결해야 할 또다른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종근 기자

(gamja@buddhapia.com)

학술단신

'한글시대…' 학술회의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소장 임기중)는 11월19일 90주년기념문화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한글시대의 불교언어와 불교문학'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한글창제 이후 갑오경장까지 한글을 매체로 한 불교언어 및 문학에 대해 조망한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불교산문연구'(인권환 고대 국문과 교수) '현대 불교시 연구'(홍신선 동국대 국문과 교수) '불교언어 연구(김무봉 동국대 국문과 교수) '불교시가 연구'(임기중 동국대 국문과 교수)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4일 백련불교아카데미

백련불교문화재단 부설 성철선사상연구원(원장 목정배)은 4일 제13회 백련불교아카데미를 연다. 이날 아카데미에서는 황인규씨(동국대 역사교육과 강사)가 '무학대사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다. 고려말과 조선 초에 걸친 무학대사의 활동과 아울러 성리학이 전파된 변천사에 대한 불교계의 대응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02)744-1544

4회 동아시아 문화포럼

동아시아문화포럼(회장 송하경)은 4일 오전10시 성균관대학교 종합강의동 31406호에서 '새로운 생명관과 문명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 제4회 포럼을 개최한다.

달라이라마등 종교지도자들 이스라엘서 '새천년 평화선언'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 등 종교 지도자들은 11월 21일 이스라엘의 5세기 비잔틴 사원 유적지에서 범(汎)종파간 종교회의를 갖고 다가오는 새 천년의 평화를 역설했다.

달라이 라마는 종교를 전쟁이나 분쟁의 수단이 아닌 평화의 수단으로 만드는 방법을 토의하기 위해 전세계 주요 종교지도자들이 참가한 3일간의 종교회의 개막연설에서 "평화에 대한 갈구는 이제 실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달라이 라마는 중국의 경고에도 불구, 이번 종교 지도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0일 이스라엘에 입국했다.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솔선식(2개월 50만원), 솔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대구여래한방)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 법륜 합장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

세시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 (053)655-2227
(011)808-8880